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감사와 예배의 마음을 담은 대표 기도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의 깊어가는 정취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 두 달을 앞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 진심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맞게 될 겨울과 새해를 위한 소망을 품고 기도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1: 가을 수확의 감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10)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고 자연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벌써 열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새삼 깨달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을 계절에 자연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 이웃에게 사랑을, 가정에 평화를, 교회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이 넘칩니다. 앞으로 다가올 11월과 12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라는 큰 절기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이 계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 한 해 마무리를 위한 준비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디도서 2:10)

올 한 해의 마지막 두 달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획했던 일들 중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가정에서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교회에서는 섬김과 봉사의 자세를 배워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두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구합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해야 할 일들은 성실히 감당하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깊은 교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기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3: 교회 공동체를 위한 축복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5)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성별, 사회적 배경을 뛰어넘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사람의 영광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신앙을 전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절기들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4: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주재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행복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가정들과 사업장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 현장에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미디어를 통해서는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로 인해 사회가 혼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5: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개인과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각자가 맡은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맡겨진 업무는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치료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있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주옵소서. 어르신들께는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성적이나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해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문들이 2025년 10월 넷째주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각의 기도문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예배 안내와 기도문은 〔교회

홈페이지〕(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